

예수 부활 대축일

제 1 독서 : 사도 10, 34a, 37-43

제 2 독서 : 골로 3, 1-4

복 음 : 요한 20, 1-9

순정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골로 3, 1).

우리 주님 알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서로 하나되고 싶어
몸살을 앓는
우리나라 산천에
꽃을 피우소서

절망의 벼랑 끝에
엎디어 울면서도
은밀히 희망을 키워온
저희 마음에도
은총의 꽃불이 활활 타올라
산을 이루게 하소서

바위를 뚫고
피어오른 진달래처럼
모진 시련 이겨내어
더욱 활짝 핀
새로운 삶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소서

* 글 : 이해인 수녀



이 시대의 부활은

한 상 갑(바오로)

바둑을 즐기는 사람들을 곤잘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다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것은 바둑 뿐”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바둑이 죽지 내가 죽나”라고 무책임하게 말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둘 하나를 놓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이며 바둑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바둑판 위에서는, 비록 차디찬 바둑알 하나지만 그것을 매체로 하여서 삶과 죽음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그런 과정에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의 요석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그 대신에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모두 두는 따지고 보면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한 선택인 것이다.

*** 민주주의를 부활시키자.**

올해에는 국회의원 총선거로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치루어야 한다. 참으로 오랜만에 민주정치가 기지개를 켜는 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들의 올바른 정치의식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법으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미루려드는 정부여당의 태도로 보아서 깨어 있는 국민의식이 지금처럼 필요한 때도 없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 의혹이 쉽사리 그 전모를 드러낼 기미를 보이지 않는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4·19와 광주의 5월이 피를 뿌려 키워온 민주주의의 열망이 너무나 지극하기에 우리는 금년의 정치과정을 가벼이 넘겨서는 안된다. 금년에야말로 우리의 정치현실이 민주주의 부활의 기쁨을 노래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땅의 정치지도자들은 너나 할것없이 동상 이몽의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심판을 보면서도 제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으로 제 목소리만 묵 터져라 외치고 있다. 말로는 국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서도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제 앞에 큰감(大權) 쟁기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 누구를 믿을 것인가? 우리는 지난번 총선거에서 우선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걸신들린 사람들처럼 처신하는 물골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런 걸로 보아서 민주정치의 부활을 바란다면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깨어 있어야 한다.

***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어찌보면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로운 것을 얻기 위한 선택의 연속이랄 수 있다. 이때에 사람마다 가치기준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선택이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준을 놓고서 서로 다투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제 기준만이 항상 옳다고 강변하며, 다른 사람들도 제 가치기준을 따라서 살기를 강요하기도 한다. 역사에 오명을 남긴 독재자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나 가끔은 보통사람들에게서도 그러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독선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보통사람들의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관대하다. 그 연유는 독선에 따른 폐단이 소위 지도자들의 그것에 비해서 적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이미 선택을 끝낸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유혹에 빠지는 약한 인간이다. 몇 번이고 마음 다짐을 하고서도 알파한 이해관계 때문에, 또는 잠시의 쾌락에 빠져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래서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광고 문안이 우리에게는 걸맞지 않는다. 하느님의 나라, 누구라도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늘 깨어 있는 새로운 삶, 그것이 곧 우리의 영원한 부활을 약속해주는 증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수가 중요하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한 수가.



숲정이 산책



주님이 계시기에

고통과 사랑의 만남

김 병 오(그레고리오) / 해성중학교 교사



10년의 세월이 흐르면 강산도 변하고 인생의 그림자도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강산이 두 번 변한 세월이 흘렀지만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전주교구 주보 '숲정이'에 요십이와 산책을 그리는 김병오(그레고리오·59세) 선생님, 부인 윤임자(말가리다·55세) 씨와 두 아들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신앙인이다.

현재 해성중학교에 재직중인 그가 교구 주보 '숲정이'와 인연이 맺어진 것은 73년, 꾸르실료를 받고 나서 무언가 교회에 봉사하고 싶었던 차, 주보에 연재만화를 실으면 좋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시작한 것이 그 동기였다. 그는 20년 동안 주보 만화를 그려오면서 기쁘기도 했지만 교회적·시사적인 자료를 늘 깨어 있는 마음으로 찾기 위해 어려움도 많았다고 한다. 5공 시대 때에는 6번이나 요십이와 산책이 금지당한 적이 있을 정도로 시대적인 느낌을 예민하게 표현했다. 올 10월이면 요십이 1,000호를 맞아 단행본을 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는 자신의 생애 중에 크고 작은 체험을 통해 주님을 가까이 느끼곤 했으나 가장 큰 만남은 암 선고를 받았을 때였다. 피눈물이 흐르고 하느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고 오직 그분께만 매달렸다. 이렇게 긴

박한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신앙의 삶을 반성하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생활이 하느님 사랑없이 자신의 만족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음을 절실하게 느껴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기도할 때도 나와 나의 가족만을 생각했지 이웃을 위해 기도한 적이 거의 없음을. 병상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나온 걸음을 되돌아보면서 부끄러움과 회심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던가. 마음으로부터 함께 누워 있는 환자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하게 되었고,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지금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 밝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에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소중하게 다가왔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사랑이 그의 걸을 땀땀하고 있음을...

그는 자신의 심정을 진솔하게 터놓는다. "치료하느라 5백만원을 사용했지만 그 댓가로 5억원 이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고통은 하느님 사랑의 표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라는 의미를 마음에 담고서 그는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통한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려는 한 사람이 되었다.

신자들의 소리

부활을 살아가는 교회

이 건 창(시문) / 송천 성당

과거 70년대의 암울했던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몹시도 불안했던 시대이기도 하였지만 자랑스럽기도 했던 지난날이었습니다. 하나로 뭉쳐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해내었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그 혜택은 외인들이 더 많이 입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 우리 교회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금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달라진 면도 있지만 비슷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면들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의 역할이 더욱 요청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신자수를 늘리고 성당의 숫자를 늘리려는 기업화(?)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외적인 팽창으로 허술해진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내실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그리스도의 집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하며 투자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부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외적인 팽창보다는 내적인 성숙을 도모하여 사회 구원사업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교회와 별개의 사회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 세대만 살고 가면 그만인 곳도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세대가 살아가야 할 터전인 곳이므로 이 시대의 환경, 구조, 정치, 경제, 문화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만 합니다. 역사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있지만 사회구성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의 봉사로 뭉쳐진 사랑의 집단이어야 합니다. 그저 재미를 위한 사교의 집단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가사를 포기한 채 성당 일에만 빠져서도 안되겠습니다. 더욱이 이 난감한 사회의 피난처로 안주해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1992년도 부활절 메시지

부활 대축일을

“하늘 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마태 13, 44).

1. 이야기는 맨 처음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에 들어섰는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나에게 지금 분명한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하는가? ‘내가 신앙의 세계를 알지 못했다면’ 하고 상상해볼 때마다 나는 아찔한 느낌을 받는가? 아니면 그와는 달리,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성당에 가고 가끔 생각이 나면 기도도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빠져나간다고 가정해도 거기 빈 자리가 별로 크게 생길 것 같지 않은가? 요컨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내게 더할 수 없는 보물이어서 그것을 잃기보다는 온 세상을 잃는 쪽을 서슴없이 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은 내 삶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나 가끔 동원되는 장식품인가?

우리 그리스도교 이야기가 시작된 부활을 기념하는 축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자신을 향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비추어 우리의 개인적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반성하는데 있어서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의 비유는 뜻깊은 길잡이가 됩니다.

2. “보물”

우선 ‘하느님’, ‘하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내게 참으로 가장 귀중한 ‘보물’인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주셨다”(1고린 2, 9)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나는 확실히 믿는가?

믿는다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말과 삶을 통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비유의 주인공처럼 그 보물을 찾아내기 전까지 자신이 아

끼고 사랑하던 온갖 것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필요하다면 선선히 포기할 태세가 됨을 의미합니다. 자란 고비였던 사람의 손이 펴지고, 집안에서나 직장 또는 사회에서 폭군이었던 사람이 봉사자가 되며, 정신을 잃고 살던 사람이 ‘웃을 바로 입고 떨정한 정신으로’(마르 5, 15) 돌아오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자신이 쓰레기더미만을 뒤지며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도, 권세도, 육체적 쾌락도 거기에 비하면 오물에 불과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호의 아들이었던 프란치스코가 누더기를 걸친 걸인이 되고, 곤룡포를 입고 보좌에 앉아 있던 왕들이 살을 찌르는 고복을 숨겨 입게 되었으며, 당대의 이름난 탕아였던 아우구스티노가 가장 엄격한 삶에 들어선 성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는 후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이미 우리가 당신 안에서만 행복함을 맛볼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낼 때까지는 마음에 참된 평화가 없나이다.”

3.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창세 12, 1) 등 ‘모든 것’을 떠났습니다. 모세 역시 하느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곳을 향해 가기 위해서 왕궁을 떠났습니다.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시몬과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자기들의 일상적인 일에 열중해 있을 때, 뜻밖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을 버리고’(루가 5, 11) 그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뒤에도 그런 일은 수없이 일어나 자신의 놀라운 경험을 말해줄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히브12, 1)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 기울여’ 섬기고 사랑해야 할 분은 하느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넬안경원

이 순 구(도미니코)
정 병 채(실비아)
☎ 54-9525
이리역 원광대 버스
승·하차장 앞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본과·연구과·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841-2496, 855-8653

새싹화원

동 양 란 전문
유 제 형(바오로)
김 영 근(크리스티나)
☎ 72-9044
(호)012-684-4876

광신보일러 공구사

귀뚜라미, 경동, 대원,
ABC보일러,
각종 공구 판매
박천근(필립보),곽선자(비비안나)
☎ 86-5038
구 형무소 삼거리←→모래내

빛이하여



천주교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하느님처럼 생각하거나 섬기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로 떨어질 위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우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과도하게 탐하는 사람에게는 '배'(필립 3, 19)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나 권력 또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염치 불고하고 양심까지 쉽게 파는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우상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공적으로 수행하시기 직전 사막에서 통과하신 유혹은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가장 흔하게 우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하지 않았느냐?"(마태 4, 10)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유혹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줍니다. 모든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 신을 섬기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 붙어 우상으로 변할 수 있는 대상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께서 치르신 싸움은 이 '자기'라고 하는 최

후의 적을 상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싸움에서의 승리를 말해주는 표지입니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을 수락하십시오으로써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려드는 경향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내놓고 찾을 때에만 발견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하느님을 찾아 얻는 일보다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운 것"(마태 19, 24)입니다. '모두'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남겨 놓은 채 찾았다고 생각하는 하느님은 실상 우상일 뿐일 공산이 큼니다. 그 작은 조각이 우상으로 둔갑하여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거나 망해버린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루가 9, 23-25).

4. "기뻐하며 돌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끊어버려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우울한 종교, 확실치도 않은 내세의 행복을 내세워서 지금 당장을 재미없이 살게 만드는 종교, 극도의 금욕주의자들에게나 어울리는 종교로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한마디로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불리고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기쁨을 선사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15, 11).

<뒷면 계속>

웅변을 배웁시다. 발표력을 기릅니다.



호남웅변종합학원

호남(제일예식장 뒤) 252-7313
 새호남(전주역 앞) 253-1411
 효자(삼전동쌍용APT앞) 221-8331
 원장 유병철(베드로) 박경애(안젤라)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판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금은
보석
시계

약혼, 결혼, 회갑예물, 목주반지 제작

금보장금방

장금태(프란치스코)
 채현옥(마리아)

전주 풍남문 옆

점포 88-4989, 지택 88-4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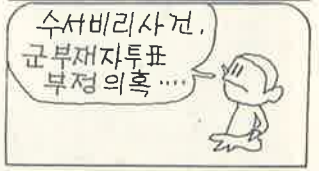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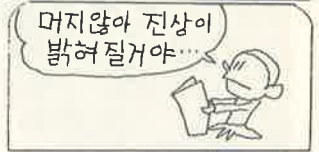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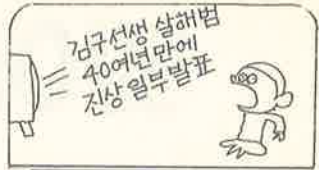
그래서 기쁨은 그리스도교의 특징이요, 따라서 '버림', '끊음', '죽음' 등이 더 큰 기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라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갈라 6, 14 참조)고 호언한 바오로 사도 역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 (1고린 15, 19) 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이 없는 버림과 죽음은 그리스도교와는 정반대인 자학은 될지언정, 참된 신앙인의 정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버리거나 끊거나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오늘날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착각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은 채
하느님을 얻으려 하고,
십자가를 거칠 필요없이
부활로 건너가려드는
경향입니다.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속에서 우리나라 자진해서 하는 희생이 아니고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자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 행위가 아버지 앞에 가치있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서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다" (요한 10, 18).

5. 오늘 우리 사회에 종교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참으로 하느님만을 가장 귀중한 보화로 여겨 그분을 얻는데 장애가 되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안전하게 간직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을 찾는가? 오늘날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착각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은 채 하느님을 얻으려 하고, 십자가를 거칠 필요없이 부활로 건너가려드는 경향입니다.

요심이 (976) 김병오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초대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 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 여성 (매월 마지막 주일)
일시: 1992년 4월26일 2시~5시
장소: 삼량진 본원
☎ (0527)52-4241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자 피정

일시: 5.2. (토) 오후4시~
5.3. (일) 오후5시
장소: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산13-24 수녀원
문의(신청): (051)514-1773, 4월30일까지.

사무용 가구

(주) 삼 신 전복특약점
금고, 목·철제책상, 의자, 쇼파, 컴퓨터 책상
중앙시장 뒤 노벨탕 옆
☎ 253-3361~2
정 광 호 (안셀모)

명상의 자리

결국 당신은

당신은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공포를 희망으로 바꾸시고
생명의 종말을
참된 생명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을 잠시,
참으로 잠지만 쉬게 하시고
다시 눈뜨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땅에 맡기시고
후에는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바꾸시고자
우리 육신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워 떠는 이에게
생명의 보증인
십자가의 표지를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까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요
보이는 곳에 홀로 군림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서로 엇갈림없이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물이 투명하게 비치는 곳에,
형태가 이루어지고 사라지는 곳에,
한 말씀이 크게 울려퍼진 다시
침묵으로 사라지는 거기에 계십니다.
하느님은 우리 자신이
신비를 만나는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소피아 피아노 학원

수시 학원생 모집
음악이론지도, 원장 직접 개인지도
동산동 우신APT 옆
☎ 212-3180
조혜경 (소피아)

정연머리방

신부화장전문, 특수헤어스타일,
컷트, 파마, 피부미용관리
효자동 제일여객 앞 골목
조정연(글라라)
☎ 223-4701

현대 미용학원

미용·피부, 본과, 연구과
☎ 86-2211, 254-3003
김금순 (테레사)
진북동 제일예식장 맞은편

미드여성헬스클럽

생활제조, 에어로빅,
비만 상담
관장 시 선 희(아네스)
☎ 254-0319
오거리 시집가는 날 옆

교 구 소 식

❖ 성당의 종소리(전북일보)

- 새집필자 : 장상호 신부(덕진), 김영수 신부(인후), 서석희 신부(효자), 이영우 신부(중앙), 정삼권 신부(전동) 정성만 신부(금암)
- 그동안 집필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 정승현 신부, 최용준 신부, 김희태 신부, 이명재 신부, 정인섭 선생

❖ 초등부 제1차 교재 연수

- 때 : 4월25일(토) 오후1시
- 곳 : 가톨릭센터

❖ 중·고 교재 연수

- 때 : 4월26일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터

❖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강습

- 때 : 5월1일-3일
- 곳 : 나바위 대건 교육관
- 접수 : 교육국

❖ 둔율동 성당 수녀원·유치원

- 신축 기금 바자회
- 때 : 4월24일-26일
- 곳 : 둔율동 성당 마당

❖ 둔율동 성당 수녀원·유치원

- 신축 건물 축성식
- 때 : 4월27일(월) 오후3시
- 집전 : 이병호 주교

❖ 10주년 기념 전주교구 M.E. 가족 큰 나눔잔치

- 때 : 5월5일(화) 오전9시
- 곳 : 해성중·고 윤희관

❖ 태아생명 보호미사

- 때 : 4월20일(월) 오전10시30분
- 곳 : 교구청 별관 1층

❖ 혼인강좌

- 때 : 4월26일 9시30분-17시
- 곳 : 가톨릭센터

• 회비 : 1만원

• 문의 : 85-5098 행복한 가정운동

❖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때 : 4월24일(금) 밤11시
- 곳 : 전동 성당

• 강사 : 김시몬수산나 수녀

❖ 주소 변경

- 효자우전 성당 사제관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14 롯데APT 3동 1104 호

❖ 축! 영명

- 21일(성안셀모) 김윤섭 신부님

성소모임

❖ 가리따스수녀회

- 때 : 4월26일 오후2시
- 곳 : 덕진 성당 수녀원 (0652)72-5304

❖ 사랑의 씨튼 수녀회(피정)

- 때 : 4월26일 9시30분-17시
- 곳 : 본원 (062)571-3004
- 회비 : 2,000원

❖ 살레시오수도회

- 때 : 4월26일 오후2시-5시
- 곳 : 가톨릭센터 2층 평화신문사
- 회비 : 1,000원 (062)55-0332

❖ 한국외방선교회

- 때 : 4월26일 오후2시-5시
- 곳 : 광주 가톨릭센터 606호
- 문의 : (02)923-1946

❖ 천주의 성요한수도회

- 때 : 언제든지 연락 방문 가능
- 곳 : 광주 본원 (062)529-0041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몇 년 전 우리는 쇠기를 사건(라면)이 터지면서 “믿을만한 회사가 이런 짓을 하다니 세상에 믿을 것 하나도 없다”라며 분개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언제부터인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좋아하고, 제품 선택에 있어서도 크고 유명한 회사의 것을 더 좋아하는데 문제가 있다. 완전 자동화된 시설의 제품만 믿고 소규모의, 사람 손길에 더 간 물건들을 도외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는 지금, 옷·공산품 등 각종 생필품들의 구입에 몇

배의 값을 더 주고라도 유명 메이커 물건을 선호하는 마음은 어른 아이 할 것이 없다. 이것이 파소비가 아니고 무엇인가?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먹는 것까지 쉽게 해결하려 하고, 심지어 된장, 고추장까지 공장에서 가공된 것을 사서 먹는 우리. 꼭 필요한 것만 적당한 가격에 구입해서 아껴쓰는 절약의 정신을 길러야겠다. 점차 미풍이 깨어지고 사람들의 사고까지도 인스턴트화되어가는 것은 아닐지 심히 염려스럽다.

생활속에 동화를 불러냅니다
원목가구·생활용품

미지트 중앙동대리점

관동로 진심미 꽃집 옆
☎ 84-8725
범 덕 배 (대표)

신부화장 및 드레스 대여
특수파마, 컷트, 맛사지전문

주영미용실

주원우체국 앞
김 주 영(울리안나)
☎ 51-2106

성모 지압 침술원

디스크 및 제반 증상 치료를 위한 지압과 침술,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원장 박 종 민(가브리엘)
전주시 서신동 298-8(서신동 성당 옆) ☎ 77-5997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치료가 어려운 티눈 제거술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 75-0550

농협계약판매·카드분할판매 서해수족관

고기구대리점 ☎841-5440,
동부시장도동청 위 ☎842-1100
이규홍(안토니오)
채숙녀(세실리아)

삼오건축자재상사

시멘트·목재·합판·내장재
가설재·스키로폴·스레이트·골재
김기완(도마)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369-13
(삼호아파트 앞)
☎ 224-3535~6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 승 남

- ※ 알렐루야!! 주 참으로 부활 하셨습니다.**
1. 옷놀이와 국수잔치: 공식미사 후, 전 신자의 참여바랍니다.
2. 대건회: 공식미사 후
3. 주일학교 은총시창: 후2시-지하 교리실
4. 여성 연합회: 21일(화) 어머니미사 후
5. 축 혼인: 26일(일) 후1시, 신랑-윤홍주(스테파노), 신부-김 양희
6. 지난주 사랑의 헌금: 145,000원, 누계: 3,109,000원
7. 금주청소: 중노 9,10반 차주청소-중노 11,12반
☐ 지난주 봉헌금: 698,160원 2차헌금: 368,850원
☐ 교무금: 939,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 ※ “축” 예수부활**
1. 사순절 저금통: 26일까지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2. 공식미사 후 차·음료수 판매: 최의의의탁 Pr.
3. 병자봉성체: 24일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4. 유아세례: 25일 오후6시30분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5. 빈첸시오회: 25일 오전10시
6. 영광 굴비 판매: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대건회에서)
7. 페루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26일.
8. 24일(금) 미사 오전10시
금주전례: 오교성 독서-황길평씨 부부
 봉헌-임영모씨 가족
차주전례: 조옥례 독서-안철조씨 부부
 봉헌-오장수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628,890원 ☐ 교무금: 1,283,6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옥

- ※ 축 부활: 모든 신자가정안에 그리스도부활의 참 빛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사목회**
1. 부활행사안내: 전10:00공식미사, 미사후 축하행사, 한반도 빠 집년이 참여하세요. 2.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성가대, 청년회: 공식미사 후 4. 성가대원래회: 25일(토) 저녁미사 후 5. 성가대, 청년회, 교리교사회 단합대회: 26일 6. 페루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다음주 7. 금주청소: 바다의별 8. 갑사: 부활행사에 열조해주시신 모든분, 제대꽃-성모회, 이발바라, 강아나다시아 9. 성서읽기: 출애32-40장 10. 금주전례: 해설-박영미 독서 ①유순천 ②김갑자 봉헌-이기봉, 이준희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양태환 ②송정자 봉헌-안정만, 박순희씨 부 부
☐ 지난주 봉헌금: 270,000원 ☐ 교무금: 235,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정 명 응

- ※ 주에수참으로 부활 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축! 영세: 주님의 자녀로새로 태어난 새 신자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회의: ① 성모회-4월19일(오늘)공식미사 후 2. 모임: ①전례부-4월23일목요일오후8시(전례부원전원참석바랍니다) 3. 알뜰: ①선후배체육대회-4월26일(일) 장소-성심학교교정, 청소년들의 선후배간에 친목을 위한 행사이니, 사목회 임원 및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주시기 바랍니다 ②평화동성당기금마련경품권, 우리 모두일매려나눔시다 ③사무장소풍-4월27일(월)~4월28일(화)(사무실휴원) ④성당페인트작업-청소년부장, 선교부장, 총무부및청년회원, 너무나수고많아 하셨습니다. 4. 갑사: 한문 두품모든10만원을 불우이웃을위하여보내오신분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663,550원 ☐ 교무금: 755,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 알렐루야! 알렐루야!**
영세를 축하 드립니다.
1. 환자봉성체: 4월15일(수) 신청바랍니다.
2. 사목회: 4.24일(금) 8:00
3. 다음주일(26일): 페루 선교사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4. 어린이복사단, 전례단 불우이웃 방문: 4월26일(일)-차량및 도움 주실분을 찾습니다(24일까지 연락)
5. 천소봉사: 5구역 1번, 2번
☐ 지난주 봉헌금: 684,800원 ☐ 교무금: 660,000원

*** 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1-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 예수부활 대축일**
1. 축! 영세: 주님안에 하나되신 형제, 자매님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 금주: 바나의 성모Cu(후2시) 3. 성화회: 20일(월) 오후6시.
4. 사무실 휴무: 22일(수) 본당가족소풍(당일 저녁미사 없음)
5. 주일학교 교리교사 교재연수: ①초등부(25일 오후1시) ②중·고등부(26일 후2시) 장소: 가톨릭 센터 6. 차주: ①성마리아 꼬미시용(오후2시) ②청년영세자환영식(저녁미사후, 소강당)
※ 고기철거: 4월26일오후2시 성화회, 돈보스코회 협조바람.
7. 예비자 교리반: ①화요일(후8시)대학생, 청년반 ②수요일(후2시)노인반 ③목요일(후8시)직장인, 성인반 ④금요일(후3시)어머니반 ⑤토요일(후4시)중·고학생반 ⑥일요일(전9시)일반인반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완 규

- ※ 축! 부활: 날마다 주님께 새로운 노래를 불러 드리자.**
※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다음주일 경성을 다합시다.
1. 바자의 준비 위원회: 23일 후8시, 위원. 봉사자 함께 참석
2. 사순절 성미, 저금통 봉헌예절: 22일 전11시, 후7시30분.
3. M.E부부 주말 김승희: 24일~26일, 유제형, 이강희, 박모니카
4. 교리교사 교재연수: 초등부-25일 1시, 중·고-26일 후2시.
5. 신우회(교도소 직원): 20일 후6시30분 평화동 성당에서.
6. 교도소 재소자 부활미사: 22일 후1시 후원회 회원과 함께.
7. 교무금 봉헌수일: 26일 월별로 책임을 완수 합니다.
8. 회의: 청년회-오늘 후8시, 성가대-22일 어머니미사 후, 빈첸시오-25일 전10시30분, 울뜨레아-26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923,820원 ☐ 교무금: 834,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 ※ 거룩하다 부활이여, 기쁘도다 알렐루야***
1. 반모임: 21일(화)오전-성원골드, 오후-한양운남, 비사벌, 저녁-삼정1,3, 22일(수)오전-화산1, 오후-신일
2. 유아세례: 25일(토)오전10시(금요일까지 사무실에 접수해 주십시오)
3. 청년회: 다음주일 미사 후
4. 남성레지오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8시.
5. 금주전례: 장병순 독서·봉헌: 이현희, 한병갑
차주전례: 정 길 독서·봉헌: 이금영, 신제철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지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 ※ 오늘은 예수부활 대축일입니다. 알렐루야! 사목회장이 동심(그리스도교 축일중에서 가장 오래된 큰 축일로써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것을 크게 기념하는 날이다)**
※ 축 영세: 4월11일 76명의 새가족이 탄생 되었습니다.
※ 모임안내: 1)꼬미시용-25일(토) 오후3시
 2)꾸리아-다음주(수) 오전10시
※ 유아세례: 다음주일 오후4시(국교2학년이하)
※ 미사안내: 금주-화해의 모후Pr
 차주-즐거움의 원전Pr
※ 부활음식잔치: 09:30분미사때부터 11시미사후까지 판매합니다.
※ 부활달걀판매: 초·중·고·학생회에서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달걀 판매
☐ 지난주 봉헌금: 1,265,990원 ☐ 교무금: 1,971,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 ※ 축 예수부활 신자여러분 모두의 기쁨에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1. 나눔의 잔치: 공식미사 후 2. 새벽회: 오후7시 3. 반기도회 모임: 24(달)10시미사 후 4. 심개리, 상태동 공소미사: 24(금)저녁 5. 유아세례: 25(토)오후2시
차주모임-사목회, 반석회, 요셉회 나눔의주일
신축헌금 봉헌액-700,000원
금주전례: 해설-강진상 봉헌①엄익도 ②권혜자
차주전례: 해설-임창수 봉헌①남상봉 ②최윤희
☐ 지난주 봉헌금: 1,232,473원 ☐ 교무금: 1,542,000원